



재가(在家) 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 방안 토론회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 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 정춘숙 의원실, 김현아 의원실, 김삼화 의원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육아정책연구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후원 |  KDB나눔재단

 KDB산업은행



PROGRAM

| 진행순서 |

시간	주요내용
14:00-14:10 (10')	개회식 (※ 사회 :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14:10-14:25 (15')	인사 말씀 - 개회사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축 사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김삼화 사진 촬영
14:25-15:05 (40')	좌 장 성정현 협성대학교 교수 발제 1 Morita Akemi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 “한일 재가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의 결합” 발제 2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재가양육미혼모 지원 방안”
15:05-15:45 (40')	토 론 박영혜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서지형 러브더월드 상임이사 변규란 에베에셀모자원 원장 재가양육미혼모 당사자 사례발표 남소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서기관
15:45-16:00 (15')	질의 및 응답
16:00	마무리



CONTENTS

| 개회사 |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2

| 축사 |

국회의원	정춘숙	3
국회의원	김현아	4
국회의원	김삼화	5

| 발제 |

한일	재가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의 결합	9
Morita Akemi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	
	재가양육미혼모 지원 방안	23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 |

박영혜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43
서지형	러브더월드 상임이사	49
변규란	에벤에셀모자원 원장	57
	재가양육미혼모 당사자 사례발표	61
남소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서기관	69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백선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재가 양육 미혼모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님,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함께 토론회 마련에 애써주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발표를 위해 멀리 일본에서 오신 동양대학교 모리타 아케미 교수님 그리고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을 선도하고 다방면의 양육지원 분야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당면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저희 연구소는 미혼모·부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 진행을 포함하여 미혼모·부의 재가 양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만 보더라도, 입양허가 수 기준으로 2008년 기준 2,556명이었던 입양아 수가 2017년에는 863명으로 줄어든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혼모들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의 입장에서, 오늘도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미혼모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미혼모·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 초기의 정서적 지원과 역량강화, 또한 실질적 자립지원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미혼모·부 가족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가 양육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정춘숙 의원님, 김현아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발표를 맡아주신 동양대학교 모리타 아케미 교수님, 육아정책연구소 김지현 박사님, 좌장을 맡아주신 협성대학교 성정현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서지형 러브더월드 상임이사님, 박영혜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님, 변규란 에벤에셀모자원 원장님, 남소연 여성가족부 서기관님, 그리고 재가 양육하고 계신 미혼모 당사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준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개회사

지역사회에서 미혼모가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혼모는 임신과 출산 시기, 긴급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모에게 주거를 지원해주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준다면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하며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일본의 Morita Akemi 교수님의 귀한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미혼모의 사례를 비교하고 중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지현 부연구위원님의 재가양육미혼모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하여 바쁜 일정 중에도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 정춘숙 의원님, 김현아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발제를 맡아 주신 Morita Akemi 교수님, 김지현 부연구위원님과 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신 서지형 러브더월드 상임이사님, 박영혜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님, 변규란 에벤에셀모자원 원장님, 남소연 여성가족부 서기관님, 재가양육미혼모당사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하여 재가(在家)양육미혼모지원에 관심이 높아지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22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영나** 드림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입니다. 오늘 '재가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육아정책연구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김현아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부모 대부분이 장시간 근로와 충분하지 않은 휴일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부모 취업률은 87.4%인데, 취업한 한부모의 48.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주 5일제는 29.8%에 불과하며,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20.7%에 달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한부모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동시에 돌봄 부재로 인해 여전히 양육부담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양육·생계·가사의 3중고에 시달리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이용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번 신규사업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미혼모 자녀 양육지원은 시설양육 미혼모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재가양육 미혼모의 경우 아동돌봄이 되지 않을 경우 일을 그만두거나 시간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으로 인해 위기를 겪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 유지의 필요성과 함께 재가 양육 미혼모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양육미혼모 지원과 재가양육미혼모 지원체계가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재가 양육미혼모 지원을 지역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한일양국의 정책비교를 통한 국내 재가양육미혼모의 지원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 양육미혼모의 자립과 자활, 지역사회의 결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미혼모에 대한 시설과 재가 지원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로서 한부모 가족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와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춘 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 김현아입니다.

먼저 오늘 『재가 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 방안 모색』 토론회에 정춘숙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육아정책연구소,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함께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혼 출생아는 1.9%로 OECD 평균 39.9%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혼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미혼모 359명 중 51%는 직업이 없었고, 60.6%는 월 소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취업 중인 37% 중에서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비율은 31.6%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편견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혼모 가족은 결국에는 생존의 위기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들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오늘 세미나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 현 아

축사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재가 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정성껏 준비한 발제와 토론으로 깊이를 더해 주실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춘숙 의원님, 김현아 의원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육아정책연구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모는 약 2만 4,000명이며 자녀 수는 2만 9,000여 명에 달합니다. 미혼부도 1만 1,000명으로 집계돼 총 3만 5,000가구의 미혼모·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부모 가정 비율도 매년 증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3%에서 2015년에는 10.8%, 지난해는 1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구 중 미혼모 비중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미혼모·부의 자녀는 2011년 2,515명에서 2015년 93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혼모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요보호 아동 수 중 미혼모·부의 자녀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은 미혼모·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재가 양육미혼모보다는 시설 양육미혼모에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재가 양육미혼모의 경우 아동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미혼모 지원체계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위기를 겪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 유지의 필요성과 함께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결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미혼모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가 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 **김삼화**



발제 01

한일 재가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의 결합

Morita Akemi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

10대 양육가정의 임신기부터 지원에 관한 연구

- 10대 양육모 대상 한일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일본동양대학 Morita Ake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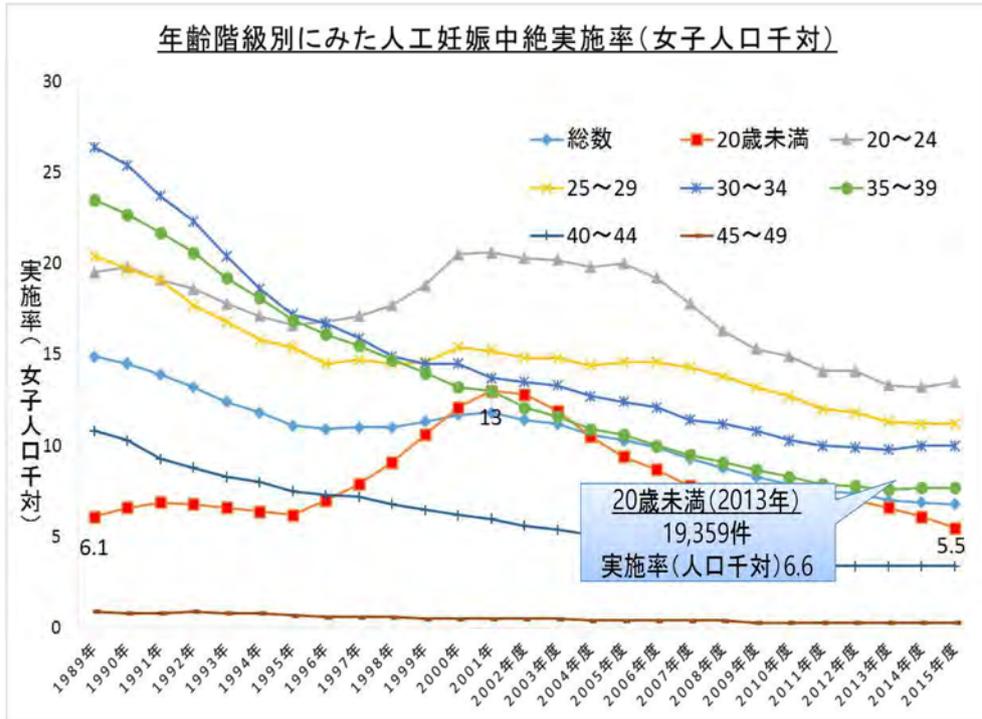
질문 및 의견 morita@toyo.jp

1. 일본의 10대여성의 출산수



出典:厚生労働省 平成27年人口動態統計(確定数)の概況より筆者が作成

2. 연령별로 본 인공임신중절을(여자인구천명대비)



3. 일본의 한부모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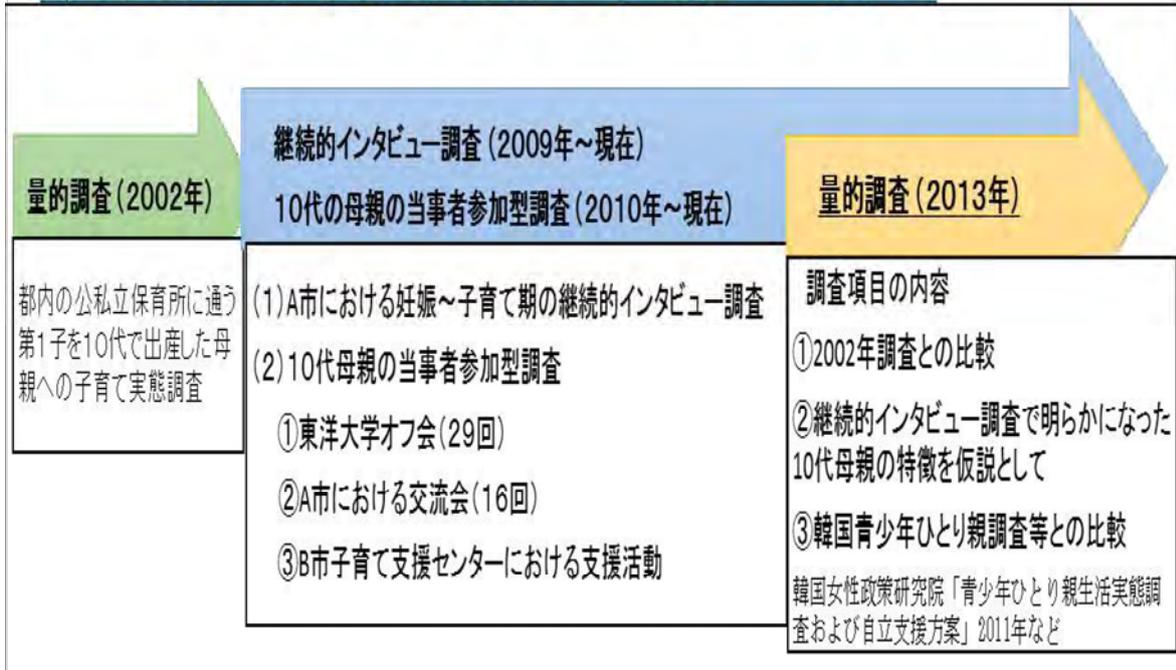
한부모가정이 되었을 당시의 모와 자(막내)의 연령 → 저연령화

ひとり親世帯になったときの母親と末子の平均年齢

	母親の平均年齢	末子の平均年齢	父親の平均年齢	末子の平均年齢
1983年	41.5歳	—	43.2歳	—
1988年	40.8歳	10歳	43.5歳	—
1993年	41.7歳	12歳	44.2歳	—
1998年	34.7歳	5.4歳	40.2歳	7.8歳
2003年	33.5歳	4.8歳	38.3歳	6.2歳
2006年	31.8歳	5.2歳	37.4歳	6.2歳
2011年	33.0歳	4.7歳	38.5歳	6.2歳

出典: 清水冬樹(2013)「ひとり親」草野いづみ編著『みんなで考える家族・家庭支援論—知っていますか?いろいろな家族・家庭があることを』同文書院, 118-127.

4) 본 연구에서 10대 출산모에 대한 조사구조



5

4-1. 본 연구에서 10대 출산모에 대한 조사구조

- 양적조사: 2002년
- 동경도 공/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첫째를 10대에 출산한 엄마들 양육 실태조사
- 지속적(반복) 심층인터뷰조사: 2009년~현재
- 10대모 당사자 참가형 조사: 2010년~현재
- (1) A시에서 임신~양육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터뷰조사
- (2) 10대모 당사자 참가형 조사
- ① 동양대학 off라인 모임 (29회)
- ② A시를 통한 교류회(16회)
- ③ B시의 양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원활동

4-2. 본 연구에서 10대 출산모에 대한 조사구조

• 양적조사: 2013년

-조사항목내용

- ① 2002년도 조사 항목과 비교
- ② 지속적 인터뷰조사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10대모의 특징을 가설로 사용
- ③ 한국의 청소년 미혼모 관련 조사연구결과 등을 참고 및 비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 방안 2011년」 등

5. 조사결과 개요

1) 일본(2013년)·한국(2015년) 조사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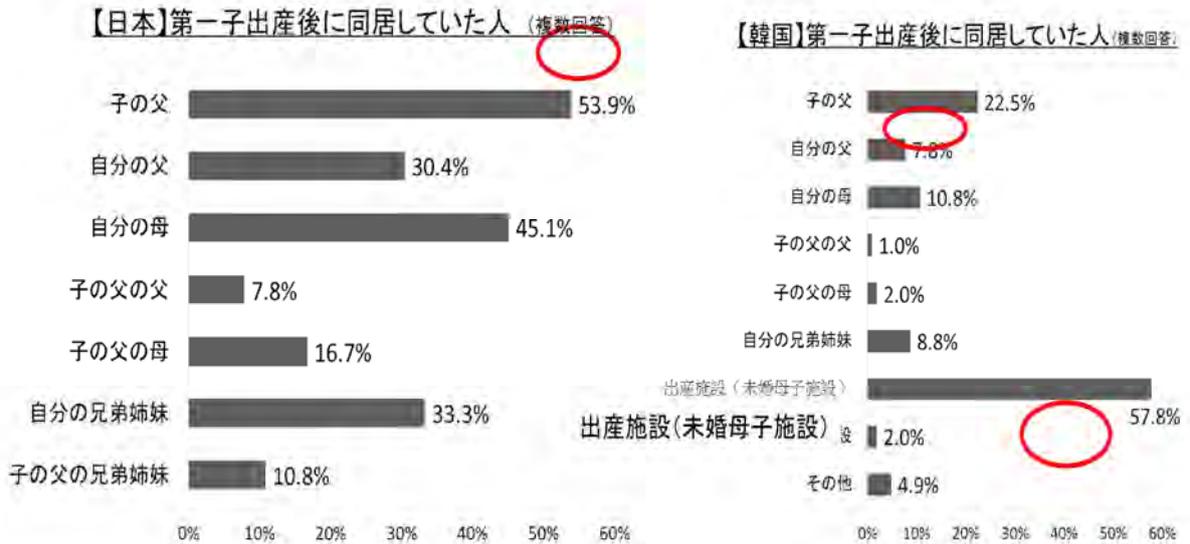
图2 일본조사(2013년)·한국조사(2015년) 응답자

	응답자수	내용	
일본	102명	동경도·동경근교시의 사립 어린이집 이용자	89명
		재택양육가정	13명
		10대에 첫째를 출산한 양육모 대상	
한국	102명	서울시 한부모 지원센터이용자(시설이용자 포함)	11명
		당사자 단체협력	82명
		미혼모 시설 이용자	9명
		:청소년 미혼모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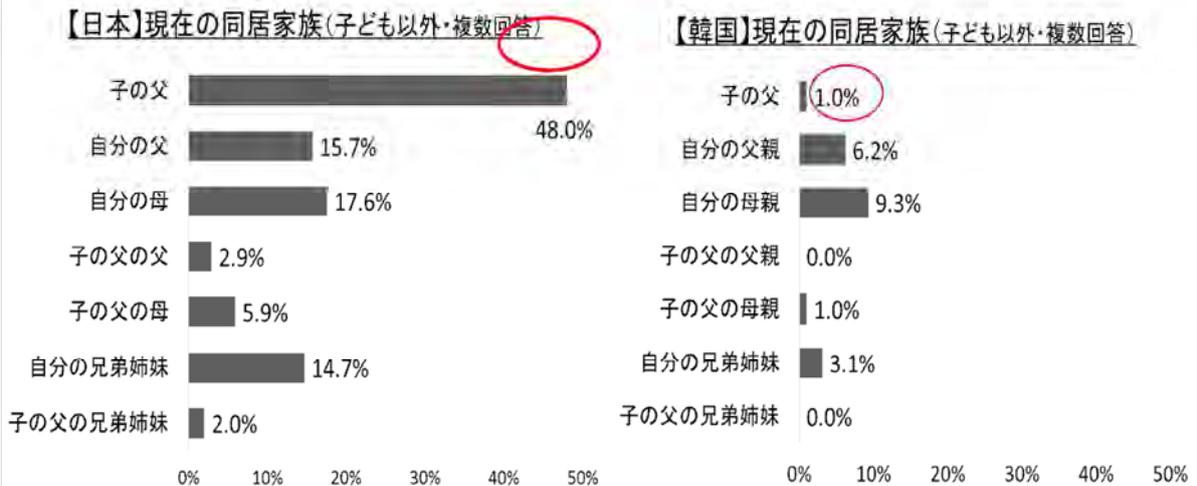
图3 응답자와 아이 아빠의 연령(첫째 출산)

	응답자 평균치	아이의 부 평균치
일본	18.0	20.6
한국	18.6	21.3

5-1. 아이 아버지와 동거(첫째 출산후) 【일본】53.9% 【한국】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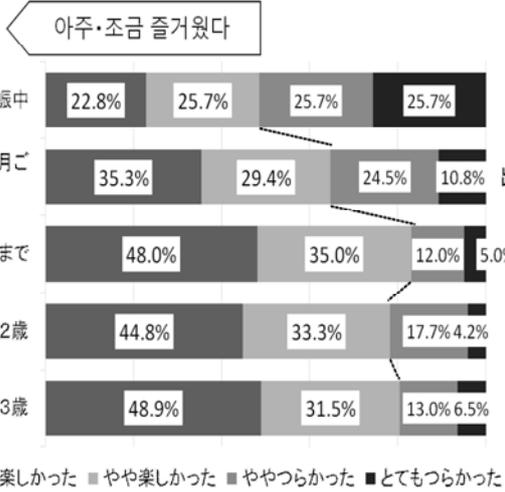


5-2. 아이의 아버지와 동거(현재) 【일본】48.0% 【한국】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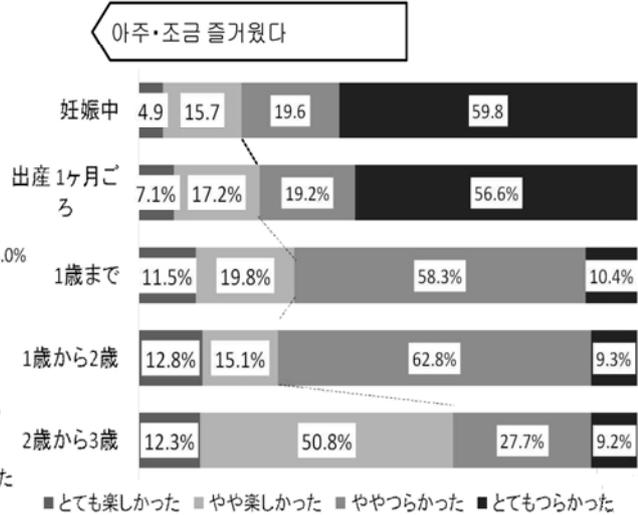


5-3. 임신~3세까지 「아주·조금 즐거웠다」 일본의 비율이 높음

【일본】임신~3세까지 기분(첫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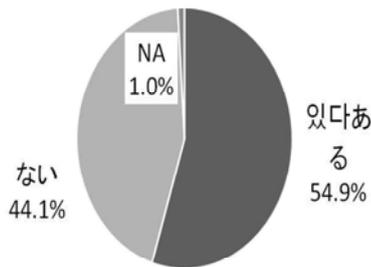


【한국】임신~3세까지 기분(첫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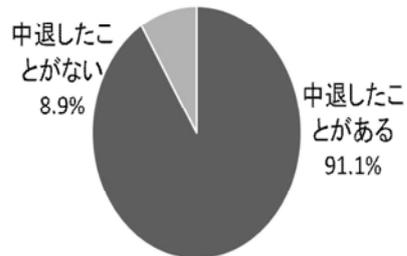


5-5. 학교중퇴경험 한국이 36%높음 일본은 임신전 중퇴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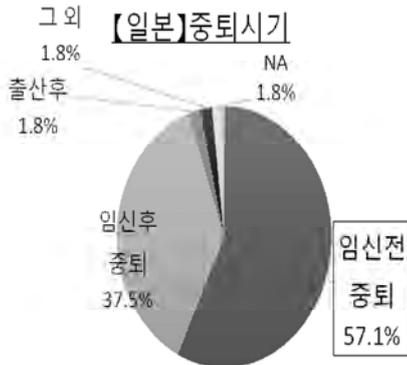
【일본】학교중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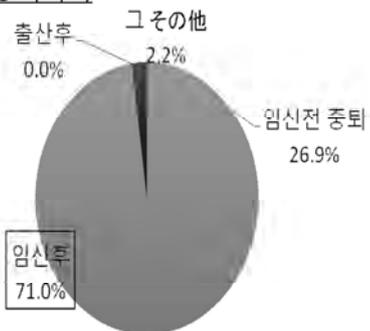
【韩国】学校の中退経験



【일본】중퇴시기



【한국】중퇴시기



5-4. 아이를 키우는게 다 싫어졌던 경험30%일본이 높음

NA 【일본】아이를 돌보는것이 싫어졌던 경험
2.9%

없다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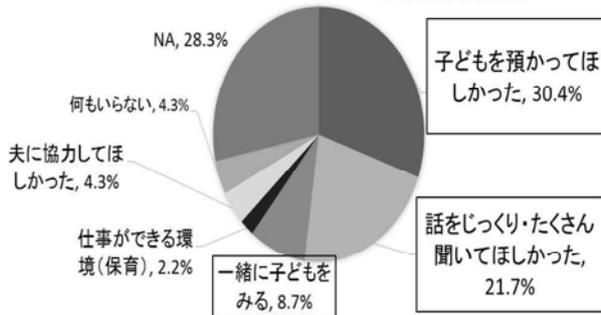
있다
46.1%

【한국】아이를 돌보는것이 싫어졌던

NA 1.0% 경험 있다
19.6%

없다
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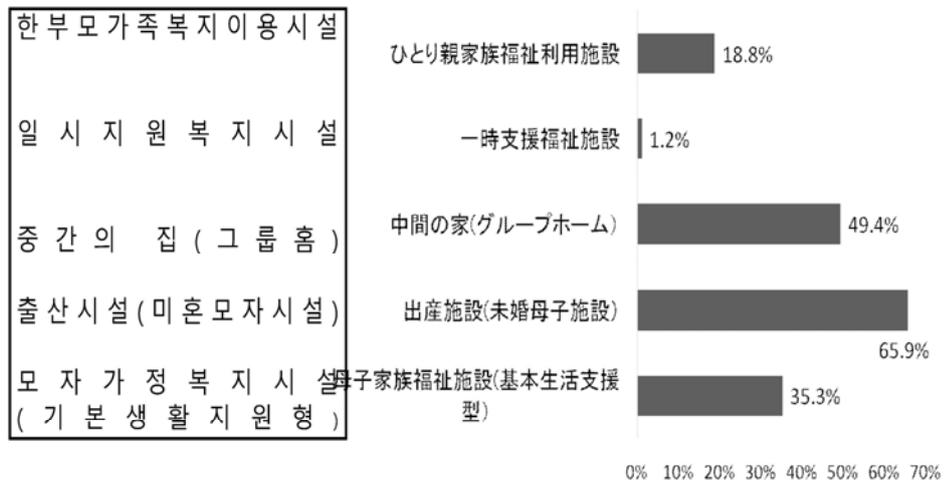
【日本】子どもの世話が嫌になった時、受けたかったサポート
(自由記述を分類)



【한국】이용한 구체적 지원내용·지원기관	Count
시설직원에게 상담·도움을 받음	5
아이를 맡기고 영화 및 문화활동으로 기분전환	1
시설이용엄마들·친구가 고민을 들어줌	2
서울사한부모지원센터에서 기저귀,분유 등을 연간70원 정도 지원 받음	
국가에서 생활비지원	4
주민센터(기초생활수급)	
주민센터/모자원(국민기초생활수급, 주택제공)	
혼자서 해결 어려움	1

5-6-1. 출산후 이용한 서비스: 한국은 미혼모출산시설이 65.9%로 가장 높음

【한국】임신·출산후이용한복지시설 (복수선택)



- 한 부모가족복지이용시설
- 일시지원복지시설
- 중간의 집(그룹홈)
- 출산시설(미혼모자시설)
- 모자가정복지시설(母子家族福祉施設(基本生活支援型))

5-6-2. 출산후 이용한 서비스

→입소시설이용: 일본은 10%미만

첫째출산후 이용한 서비스	【日本】第一子出産後の利用サービス (複数回答)
아동부양수당(47.1%)	児童扶養手当 47.1%
영아원(0%)	乳児院 0.0%
아동양호시설(2.9%)	児童養護施設 2.9%
아동자립지원시설(1.0%)	児童自立支援施設 1.0%
자립원조홈(0%)	自立援助ホーム 0.0%
모자생활지원시설(6.9%)	母子生活支援施設 6.9%
위탁가정(0%)	里親 0.0%
부인보호시설(2.0%)	婦人保護施設 2.0%
아동관양육지원센터(43.1%)	児童館・子育て支援センター 43.1%
쇼트스테이(2.9%)	ショートステイ 2.9%
야간스테이(0%)	トワイライトステイ 0.0%
헬로 워크(지업훈련기관)(24.5%)	ハローワーク 24.5%
이용한것이없다(14.7%)	利用したものはない 14.7%
모르겠다(2.9%)	わからない 2.9%
	NA 0.0%

入所施設

5-7. 어린이집이용

좋은점:【일본】아동발달·교육에 도움을 받았다 【한국】안심하고 일·학업

싫은점:【일본】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많음 【한국】이용수칙이 엄격하 보육사로부터 주의

어린이 집에 다녀서 좋은 점

日本N=89 韓国N=73

	【日本】	【韓国】
이동발달 및 교육에 도움	1位 71.9%	6位
안심하고·학업가능	2位 70.8%	1位
아이가 친구와 놀 수 있게 됨	3位 70.8%	4位
아이가 집단행동가능 하게 됨	4位 66.3%	12位
육아에 여유가 생김	10位	2位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됨	6位	3位
보육사가 자신을 평가하고 인정해 줌	22.5%	5.5%

어린이 집에 다녀서 싫은 점

日本N=89 韓国N=73

	【日本】	【한국】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많은 점	1位 30.3%	8位
일요일·휴일 이용이 어려움	2位 28.1%	7位
어린 부모라는 것만으로 편견을 당하는 것	3位 27.0%	9位
아이가 아플 때 대응	4位 21.3%	4位
어린이집 이용수칙이 엄격함	10位 6.7%	1位
아이의 일로 보육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일이 있음	6位 13.5%	2位
어린이 집에서 다쳤을 경우 보육사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았다는 느낌	12位 3.4%	3位

* 일본조사는「인가어린이집」

* 일본은 복수선택 한국은 5개까지

6. 고찰1

1. 한일비교조사에서 보는 일본의 10대 양육모지원 과제

(1) 일반정책에서 가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성장보장과 부모지원지원을 위한 제도
이용의 어려움

→이용 시책의 보완과 10대부모를 위한 특별한 지원 필요

(2) 보호제도 가치
한국조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출산시설 이용 등 보호적 지원
의 유효성

→ 일본의 제도적 미흡함과 기존의 제도(모자생활지원시설
/부인보호시설)또한 현재의 엄마들의 생활스타일에 맞지 않
음

7. 고찰2

2. 10대 부모 지원 과제

(1) 사회일원(부모)로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

(2) 10대부모에 대한 편견에 의해 고립,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어려움

① 자신의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안심·안전한 사람과 장소가 필요

② 「지원자가 정하는 지원형태」에서
「당사자(이용자)주체의 지원 형태」로 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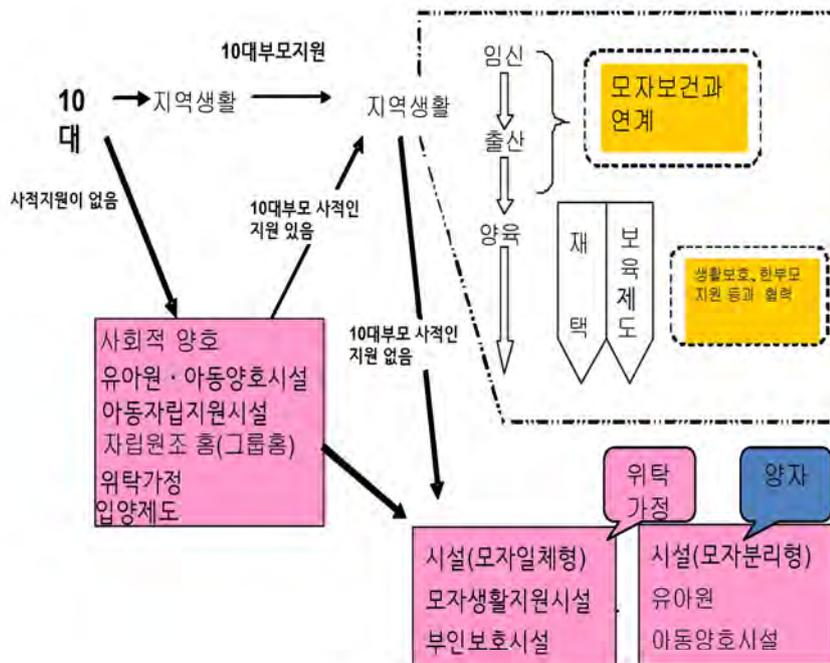
③ 출산·양육 주체자로 인정, 함께 실현해 갈수 있는 시스템

④ 당사자(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지지하는 지원시점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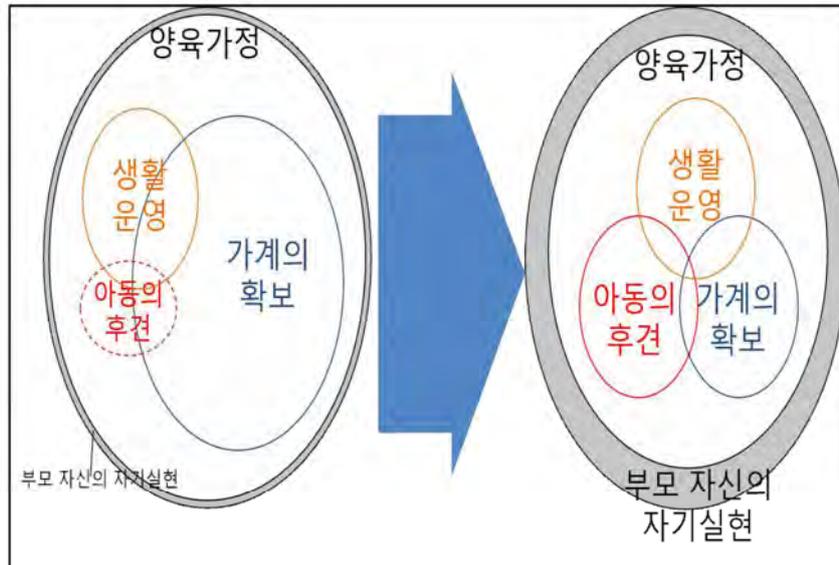
8. 본 연구에 근거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1. 내무부 아동·청년플랜에서 10대 출산 부모지원을 명시화
2. 기초지자체에서 인가어린이집 입소기준에서 18세 미만에 출산한 부모가 희망할 경우 인가어린이집에 우선입소 실현
 ※2015년도: 동경도 八王子시, 2016년도 동경도 서동경시
 ※2018년도: 동경도 世田谷구(우선입소를 지시)
3. 양육지원기관, 양육지원제도에서 10대에 출산한 부모의 임신기부터 계속적 지원을 실시
 ※千葉県八千代市(치바현 야치오시), 埼玉県(사이타마현 한노시, 와코시)

9. 10대 부모의 임신·출산·양육지원



10. 양육가정의 역할과 부모자신의 자기실현의 균형



11. 아동문제는 왜 계속 일어나는가

-향후 문제해결에 필요한 시점-

당사자 주체가 아님

- 자신이 속한 사회(지역)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의식이 없음
- 빈곤 등 자신의 문제를 해결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

당사자와 신뢰된 관계를 가지고 함께 계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원자의 존재



발제 02

재가양육미혼모 지원 방안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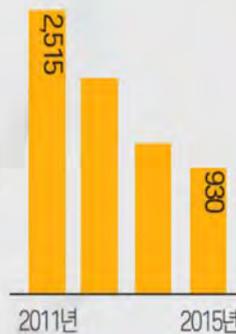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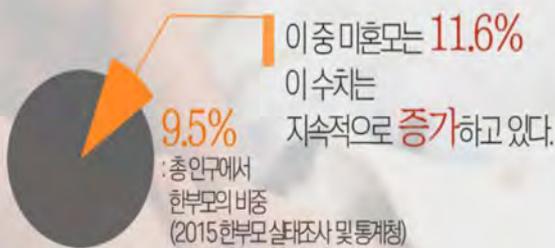
재가 양육 미혼모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지현

* 본 발표는 김지현, 권미경, 최윤경, 김지현, 권미경, 최윤경(2018)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Ⅳ)": 미혼모부가정의 재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수행중)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함

재가 미혼모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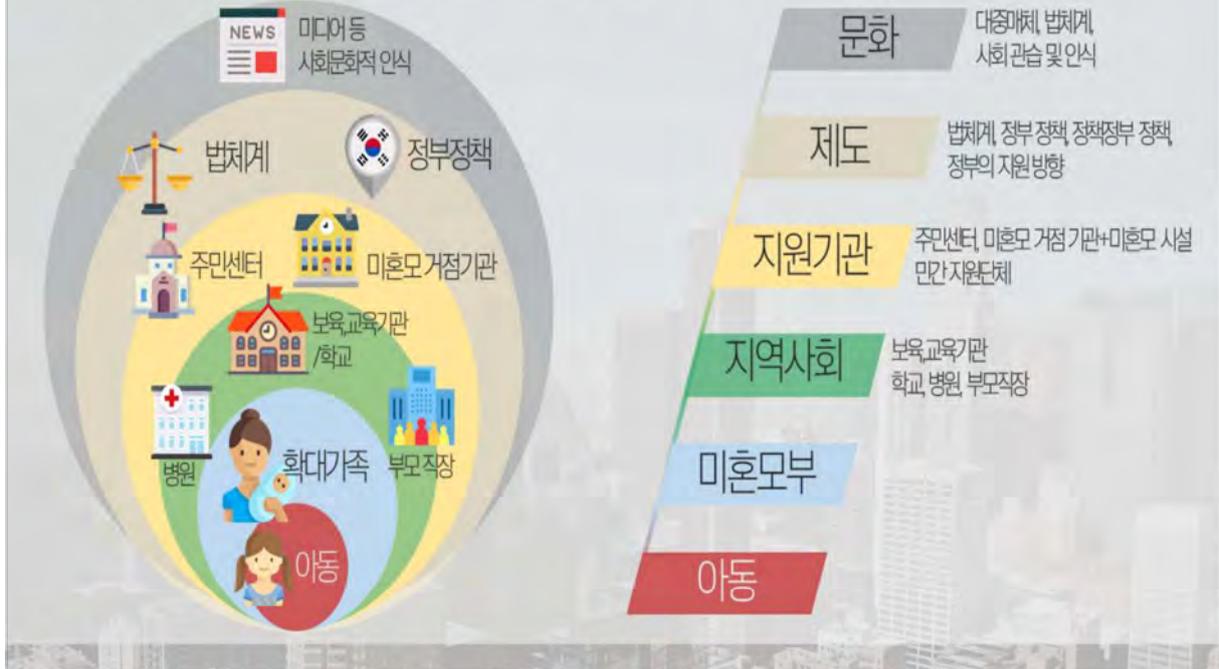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중
미혼모부의 자녀 수
(보건복지부, 2016)

매년 요보호 아동 수 중
미혼모부의 자녀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미혼모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목차 - 재가 양육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를 중심으로



0 재가 양육 미혼모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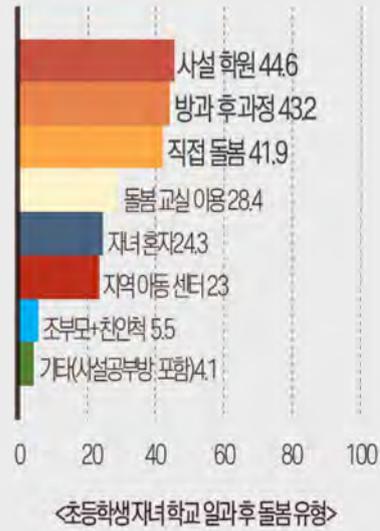
구분	응답내용	백분율(수)	구분	응답내용	백분율(수)
응답자 현재연령	만24세이하	15.7(47)	현재취업 및 학업상태	취업중	24.7(74)
	만25세~29세	26.0(78)		구직중	23.3(70)
	만30세~39세	43.3(130)		학업중	20.7(62)
	만40세이상	15.0(45)		전업주부	31.3(94)
자녀연령	영아	51.7(15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38.7(116)
	유아	23.7(71)		100~200만원	40.7(122)
	초등학교생	24.7(74)		200만원이상	20.7(62)
가구구성	본인+자녀	68.0(204)	거주지역	대도시	51.3(154)
	본인+자녀+가족및지인	32.0(96)		중소도시	35.7(107)
				읍면지역	13.0(39)

* 조사대상: 초등학교생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300명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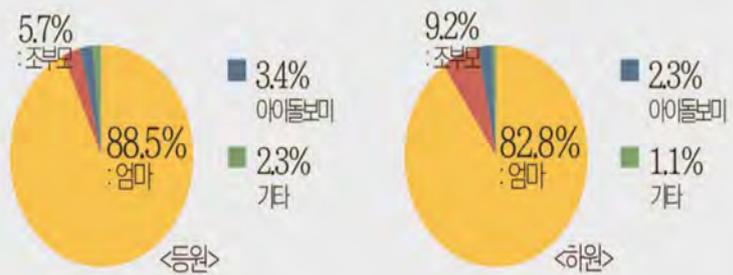
* 모집방법: 인트라, 한국 미혼모 협회, 대구 미혼모 협회의 커뮤니티를 통한 조사 참여 홍보 + 17개 미혼모부 거점기관을 통한 조사 협조

아동 돌봄 유형(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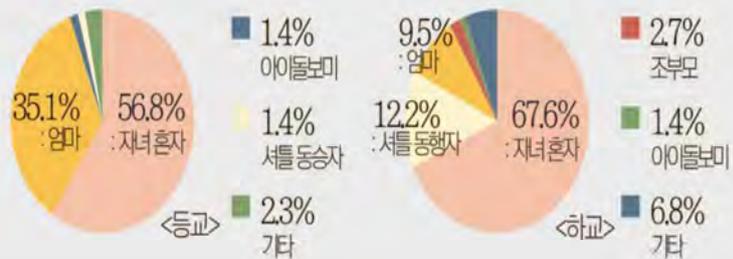


등학교 동행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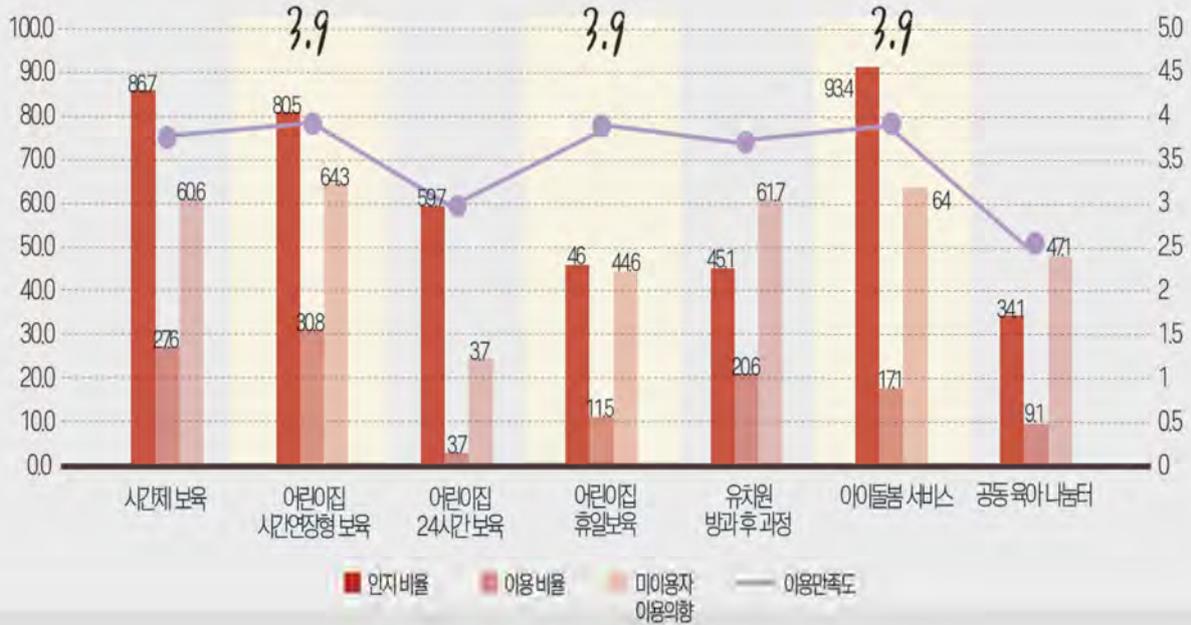
미취학 아동 자녀 등하원 동행자



초등학생 자녀 등학교 동행자



미취학 아동 돌봄 서비스 조사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조사



돌봄 서비스 미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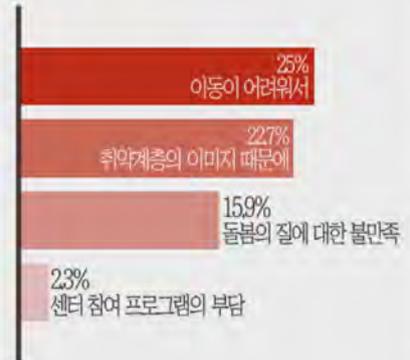
초등 돌봄



아이돌보미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자녀 혼자 있는 비율/시간



(N=44)	
이유	비율(%)
야근 및 주말 근무	50.0
돌봄 공백	25.0
집앞에 볼 일	11.4
지인 만남	6.8
돌봄기관의 약속 미이행	2.3
기타	4.5

▶ 자녀 혼자 식사하는 정도(%)

김현경(2018)·국립중앙도서관
 『돌봄취약계층맞춤형 복지지원방안』, 미혼모·부가정리자·양육실태 및 지원방안 의결(추행중)



▶ 아버지의 부재 인지

아버지를 처음으로 찾기 시작한 시기,

“만 3.8세 유아기”



- 영아 잘 모름 80.6%
- 유아 잘 모름 28.2%
알고 받아들임 31%
- 초등학생 알고 받아들임 51.0%
알고 있으나, 혼란스러워함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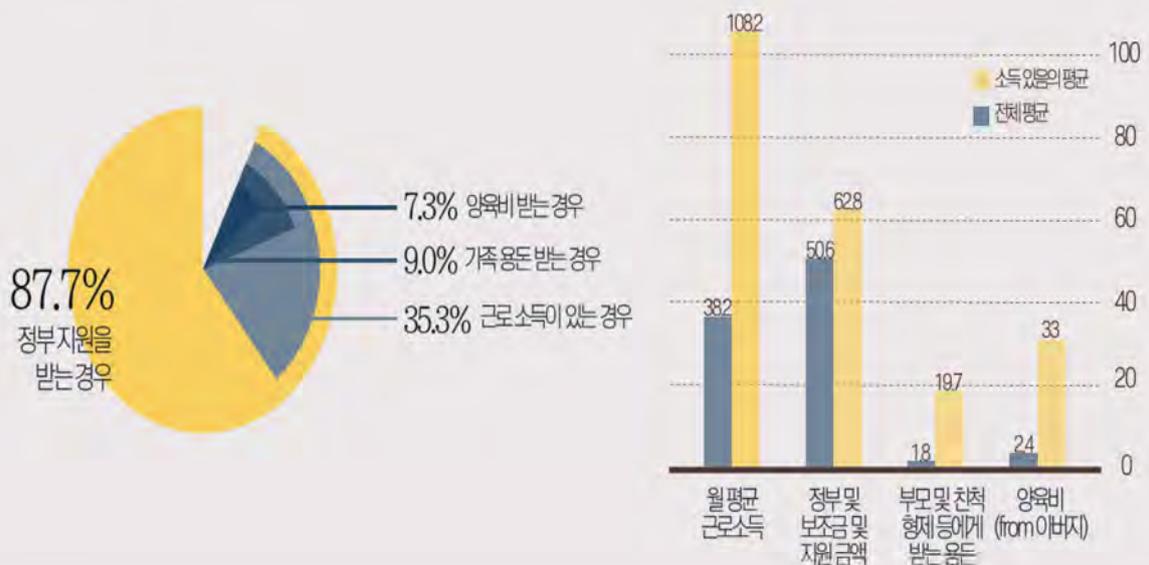


▣ 아이가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

재녀 연령	스트레스의 원인						(수)
	학교나 기관의 친구들	보육/교육기관의 선생님	아이 친구들의 부모	조부모 등 친척들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기타	
전체	56.1	32.9	31.7	20.7	8.5	18.3	(82)
영아	15.4	53.8	38.5	7.7	15.4	23.1	(13)
유아	63.6	24.2	33.3	21.2	6.1	21.2	(33)
초등학생	63.9	33.3	27.8	25.0	8.3	13.9	(36)

유아나 초등학생은 **또래 집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만, 영아의 경우 **선생님, 부모 지원 기관** 등 유아나 초등학생에 비해 **스트레스의 원인 폭이 넓음**.

▣ 미혼모 가구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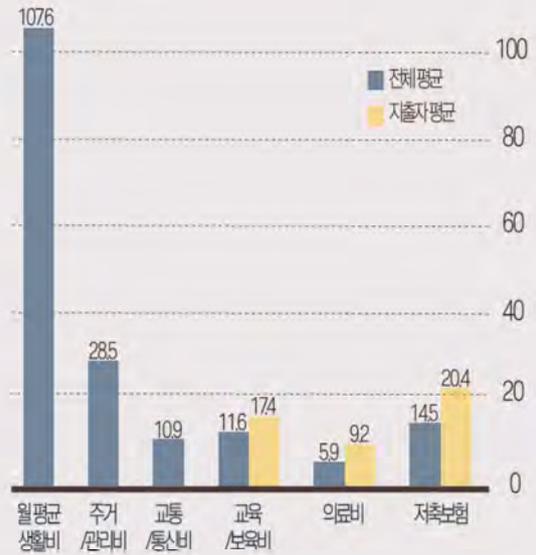


미혼모 가구의 지출

총 생활비 평균
"107.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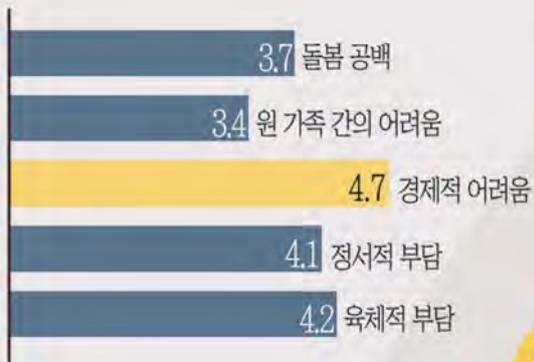
채무가 있는 가구
"66.3%"

채무내용	비율
생활비	55.3%
보증금	19.6%
아이야비/출산전채무	10%
학자금	9.0%
의료비	5.0%
통산비 소액결제	5.0%
기타	6.1%



미혼모 가정에서의 육아 어려움

심층 면담 결과



- 영아**
1. 심리적 안정 찾기
 2. 나홀로 육아의 어려움
 3. 출생 후 행정 처리
 4. 거점센터 이용 불편



- 유아**
1. 아빠 부재에 대한 대처
 2. 기관 이용 시작으로 인한 관계적 문제
 3. 자립에 대한 부담감



- 초등**
1. 돌봄 이용 어려움
 2. 교사/친구들의 반응
 3. 타 학부모와의 관계
 4.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

미혼부 양육의 어려움

1. 법 체계

-> 미혼부 시설, 아이의 보육기관 이용, 미혼모부 시설이용, 한부모지원 등이 모두 불가능

2. 자조모임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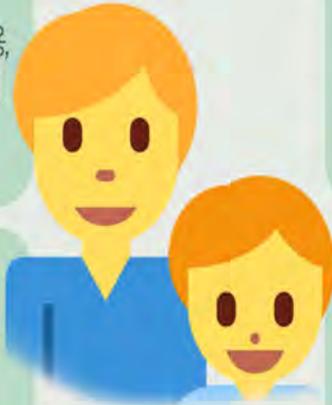
미혼부가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해도 만나기를 꺼려 조언을 구하기 어려움

3. 사회인식

아이 혼자 데리고 나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똥지만 쳐내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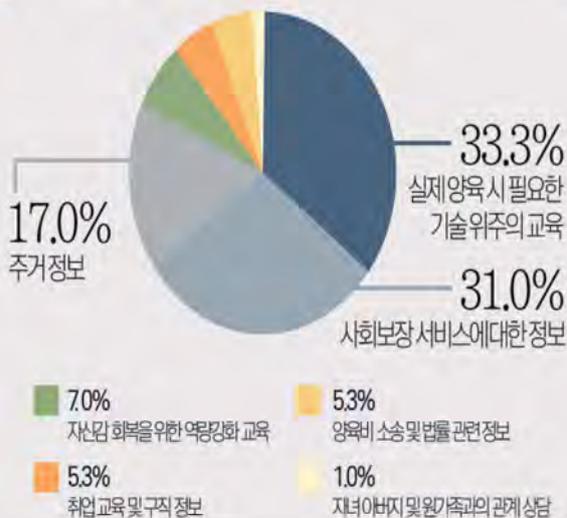
4. 양육지식 부족

아이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부모교육 참여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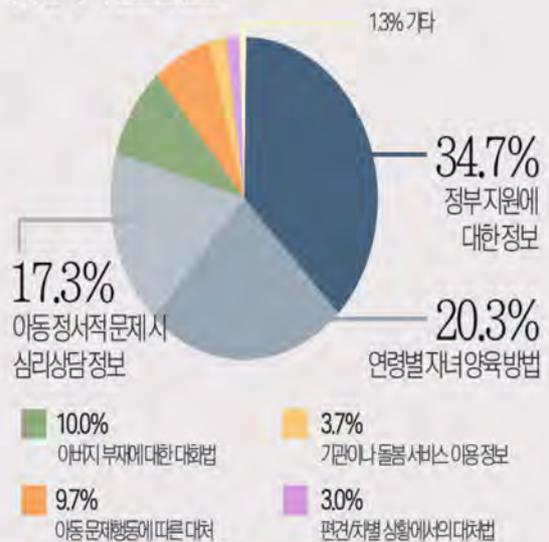


미혼모 가정이 필요로 하는 정보

출산 직후 필요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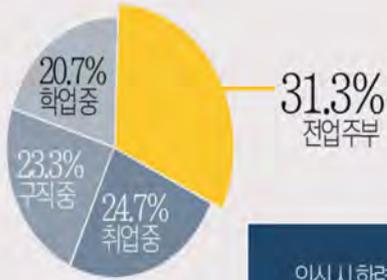


재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



현재/임신 시 취업 및 학업

취업/학업 상태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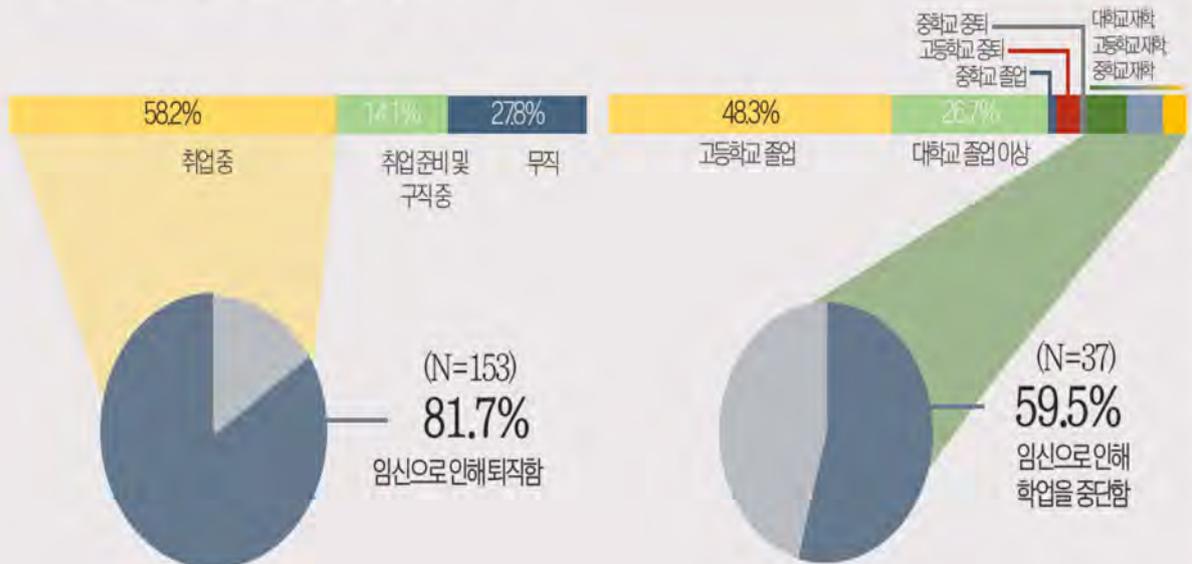


임신시취업및학업	현재취업및학업				계
	취업중	구직중	학업중	무직	
취업중	30.7	24.2	16.3	28.8	100.0(153)
구직중	13.5	35.1	24.3	2.7	100.0(37)
학업중	10.8	29.7	37.8	21.6	100.0(37)
무직	24.7	12.3	19.2	43.8	10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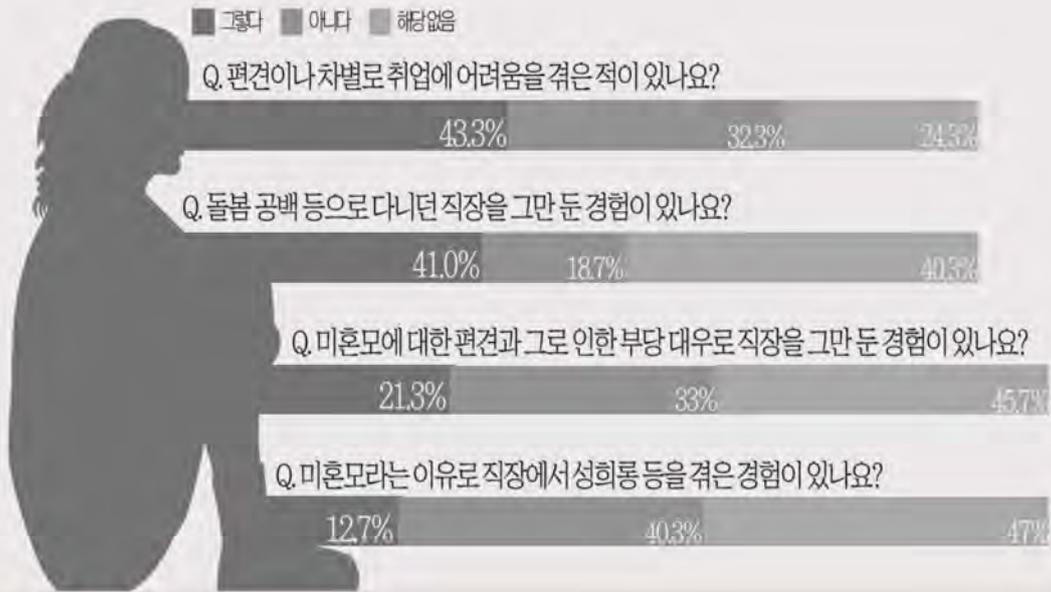
임신 시 학력과 최종 학력 비교

임신시 학력	최종 학력						계
	중졸이하	고등학교 중퇴/재학	고졸	대학 재학/휴학	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	
고등학교 중퇴	8.7	60.9	13.0	13.0	4.3	0.0	100.0(153)
고등학교 졸업	0.0	2.1	83.4	12.4	1.4	0.7	100.0(37)
대학교 재학중	0.0	0.0	19.2	53.8	26.9	0.0	100.0(37)
대학교 졸업 이상	0.0	2.5	3.8	5.0	8.7	1.2	100.0(73)

임신으로 인한 퇴직/학업중단



미혼모가 경제 활동 시 겪은 경험



미혼모가 경제 활동 시 겪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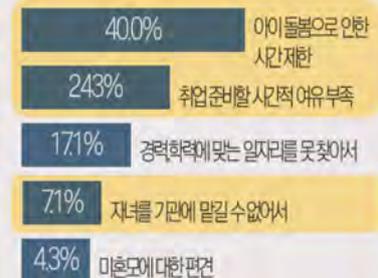
업무 시 어려움 (취업중 N=74)



취업 교육 시 어려움 (경험자 N=153)



구직 시 어려움 (구직중 N=70)



원가족과의 관계



“저희 엄마는 미혼모 딸을 위해서 힘들고...
 저희 언니도 미혼모 동생을 위해서 힘들고...
 저도 미혼모라서 힘들고,
 그건 해결이 안 돼요.” - 영아 부모 인터뷰 중

대체적으로 양육후 가족간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자녀의 **유아시기 이후** 자녀 덕분에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경우들이 늘어남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근데 어느 날 이런 단톡방이 그냥 멈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혼모한테 막 무타고 그러는 거예요.
 미혼모인거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리고 제편에 관한 얘기했던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도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자랑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피하셔요.
 그래서 접근도 못하겠어요.
 엄마들 모임도 있었는데 안 갔거든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이용 시의 불편함

직원들의 부정적인 시선

- 혼자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 주민센터 직원들의 미혼모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
- 혼외자로 체면하고 아빠 이름 없이 출생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아빠 이름을 쓰게 한다든지, 왜 아빠가 없느냐고 큰 소리로 말한다든지, 그 사실에 대해 직원들끼리 수군거리거나 놀림거리처럼 말한다든지 하는 경험을 통해 수치심을 느낌

담당 직원의 정보 부족

- 주민센터 담당 직원도 미혼모 정책 및 자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함
- 한부모 지원 및 출생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해 꼭 들러야 하는 접점인 주민센터에서 미혼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 정보 자조 모임 등의 존재를 알려준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임
- 하지만,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신경을 많이 써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은 사례도 존재

(면담 중)

“저는 한부모가 돈을 받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들 받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못 받는대요.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 되네요 이래요.”

병원 이용 및 산후 조리

병원 방문 시기(N=300) 및 이유(N=100)



- 44.0% 임신 14주~24주
- 13.3% 임신 25주~33주
- 3.7% 출산 때까지 가지 않음
- 2.3% 임신 34주 이후

- 34% 병원비가 없어서
- 16% 출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
- 14% 두려워서
- 9% 임신 사실이 노출까봐
- 4% 아이의 아버와의 관계 정리
- 23% 기타

산후조리 여부 및 장소



“병원 방문 지연으로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이 위협할 수 있음”

“산후 조리를 하지 못한 경우가 28.3%, 정부 지원 산후 조리 지원을 받은 경우가 13.2%로 지원 정보 홍보 필요”

양육비 소송에서의 변화 필요성



소송과정 및 판결 후의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

“어쨌든 미혼모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잖아요, 남자한테는.”

“똑같은 부모의 책임이 있는데 왜 엄마가 그 책임을 반려자가 될 뻔한 아이 아빠한테 묻고자 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높은 소송 비용

“저는 만삭 때까지 일했거든요. 일을 해서 그걸로 재판 했는데, 소송 비용까지 해서 1,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의미가 없어요.”

미혼모부 초기 지원 거점 센터

이용률은 10% 안팎이나, 만족도는 3.5로 높은 편

지역별로 받는 지원이 다름

“2개월까지” “년 50만원”, “1년만”

- 미혼모부 이용 수에 상관없이 예산이 한 개소당 1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음

거점센터가 너무 멀리 있어

실질적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움

- 전국에 17개의 거점센터만 있음

거점센터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설명 반복, 관계형성 반복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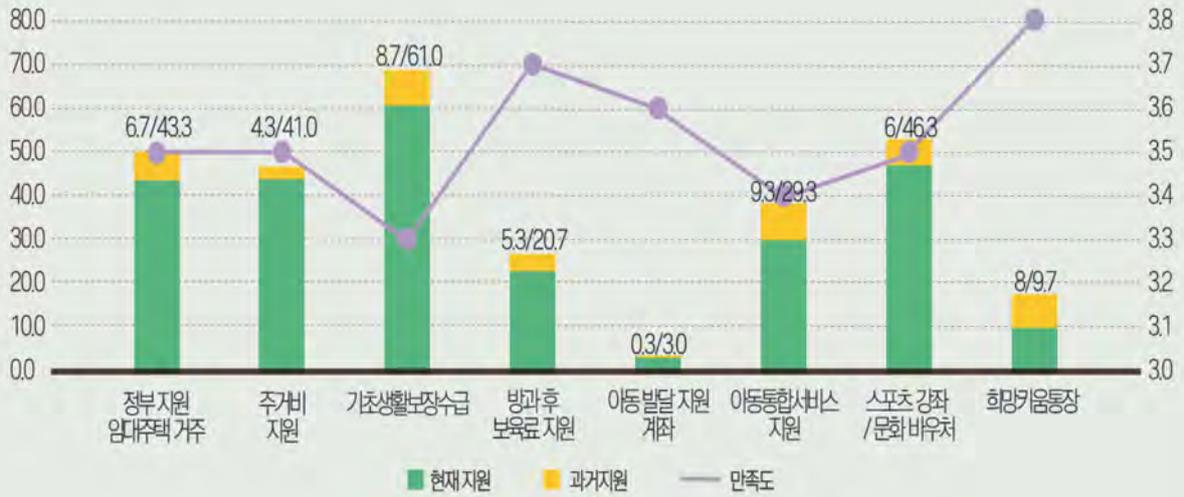
- “상한임금 18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담당자의 경력증거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지 않아 업무지속이 어려움

미혼모 인원수에 비례한 예산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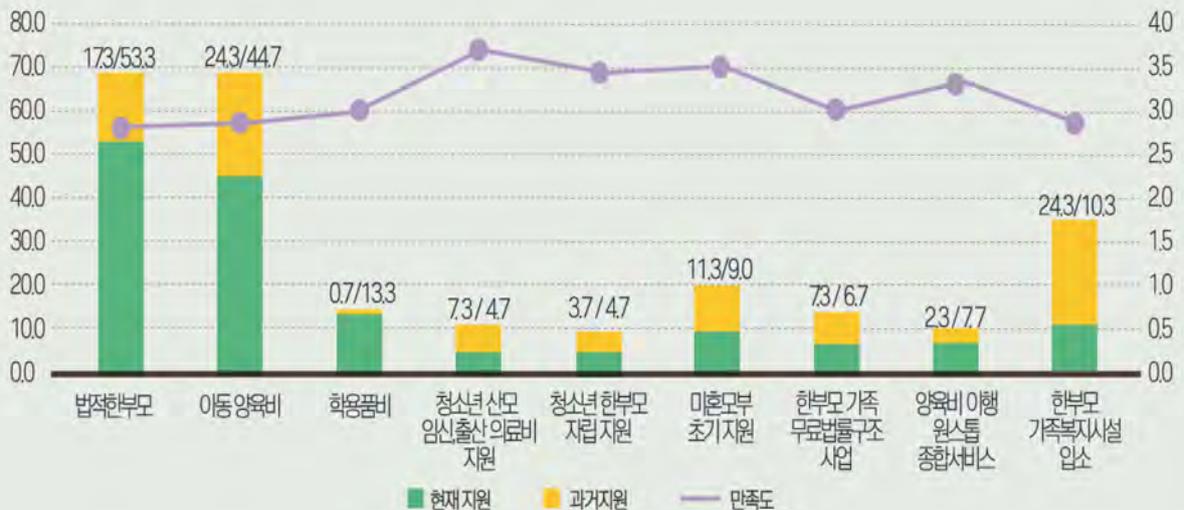
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셔틀 버스 운영 등 지역적, 자율적 운영 인정

“담당자 임금을 185만원 이내로만 지급” 문구 삭제 및 센터 임금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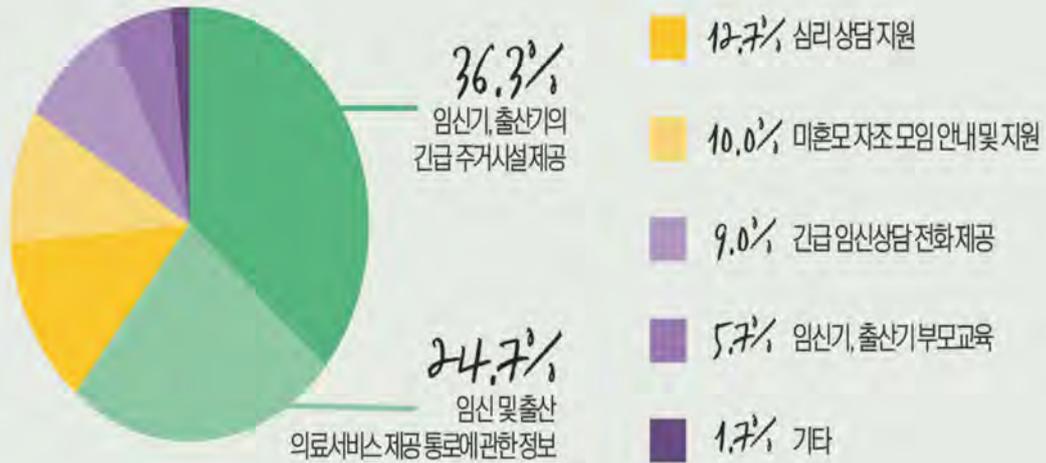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한부모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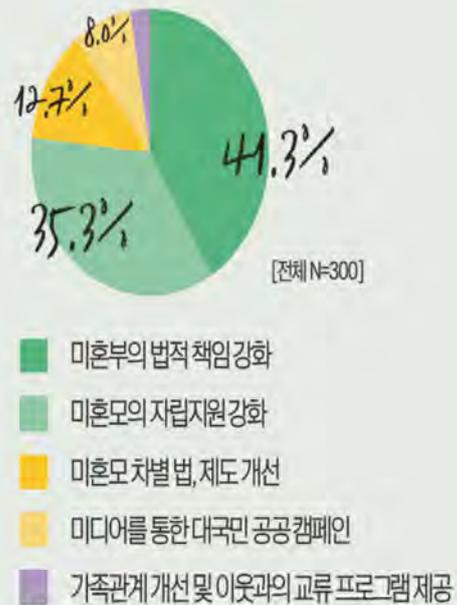
임신기·출산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미혼모 차별 심각성
31.7%, "매우 심각하다",
44.3%가 "심각하다"로 응답



정책 제언

<p>(아동) 돌봄지원 -우선순위개선 -가사도우미 지원</p>	<p>(미혼모거점센터) -담당자임금상승 -지역별/자율적 운영 지원</p>	<p>(법체계) -미혼부 책임강화 -출생신고절차 개선</p>	<p>(지원정보) 미혼모/한부모 원스탑 안내전화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p>
<p>(자립지원) -자립 유예기간 증대 -취업 프로그램 양육배려</p>	<p>(아동) 영아/유아기 정서적 지원 원가족 회복상담</p>	<p>(병원)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강화</p>	<p>(인식) 사회적 인식개선 공공캠페인</p>

Thank You



토론 01

토론문

박영혜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재가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방안 모색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영혜

1. 재가양육미혼모 지원사업

2009년부터 미혼모·부지원정책의 전달체계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0년간 예산은 고정되어 있고 미혼모는 늘어나는 시점에서 재가양육미혼모·부의 지원을 위해 센터 내부에서의 지원 결정과 후원연계, 프로그램개발 등을 더 많이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원내용은 연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것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만 가능합니다. 이 금액 내에서 출산시는 출산비용 4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물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출산까지 그리고 부의 부재로 인한 복합적인 감정으로 부모가 되는 이들은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아이를 키울 것이며,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이혼이 증가하고, 한부모가 증가하고, 비혼이 증가하고, 미혼모부가 증가하고...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혼모는 가족의 형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가족정책의 지원은 보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미혼모가 시설입소에서 여러 사유로 거절되고, 시설에 들어가서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그런 구속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싶지 않고, 그러한 제재가 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워도 지하방을 구해서라도 자유롭게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선호하여 재가양육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상호만족을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부모정책을 여가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없습니다. 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육과 상담, 그리고 당사자 멘토 양성을 해서 초기 미혼모들에게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러한 지원들이 전국적으로 곳곳에 있어서 초기 대응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야 2차적인 문제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혼모의 양육효능감 요인 연구(박영혜, 2015)에서 주거와 양육스트레스,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재가양육미혼모 지원을 하는 동안 그들은 아이와 함께 있을 집이 필요했고, 양육을 도와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고, 사회적 편견과 원가족으로부터의 소외에서 낮은 자존

감으로 우울한 미혼모들을 만났습니다. 지속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공동생활주거지원사업을 받아 주거를 제공하고 있고, 센터의 이용자인 미혼모들에게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그리고 그들의 자조모임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점으로 전체 재가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혼모를 다 아우를 수도 없습니다.

사회변화와 가족의 변화는 정책을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 지역사회 미혼모 인식 전환의 필요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가 사회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차별사유가 되는 여러 항목 중에서 우리 미혼모들과 관련이 있는 임신출산과 혼인 여부, 가족형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별의 가장 큰 원인은 소수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나라 문화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3.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융화

첫째, 보편성입니다. 출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보편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출산 가정의 아기의 건강체크와 양육방법, 모의 심리상태 상담과 모의 건강상태 점검, 아기용품과 분유, 기저귀 지급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보건소나 병원에서 일차적으로 서비스지원을 담당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둘째, 자립과 자활입니다. 재가양육미혼모는 시설양육미혼모보다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나(박영혜, 2015) 아동 돌봄이 되지 않을 경우 직장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재가양육미혼모가 시설양육미혼모보다 연령과 학력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고 생활비 확보를 위해 직업을 더 필요로 하였습니다. 미혼모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돌봄 지원을 지역의 돌봄기관에서 돌보미를 파견하여 일정 기간 무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출산 전후 초기 위기대응 시설의 확충입니다. 재가와 시설의 양육미혼모 정부 지원 차이(박영혜, 2015)에서 시설양육미혼모의 연령과 아동의 월령이 재가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아동의 월령이 낮을수록 미혼모의 자립생활이 어려워 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결과로 볼 때 출산과 양육을 하는 초기 시설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시에 머무르는 시설에서 일정 기간 안정기를 가지고 2차 재가나 공동생활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초기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 것입니다. 위의 제언들은 초기 위기대응에 꼭 필요한 것이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이 해체의 길을 가거나 아동의 유기, 방임, 미혼모의 심리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더 많이 소용될 것입니다. 사전예방의 차원과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융화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사회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02

토론문

서지형 러브더월드 상임이사

재가 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방안

러브더월드 서지형

10대 양육가정의 임신기부터 지원에 관한 연구 발제와 재가양육미혼모 지원방안 발제 두 분께 고맙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결과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미혼모·미혼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복지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 러브더월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부 사례와 함께 몇 가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단체를 설립한지 4년차인 비영리단체 러브더월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국의 재가 양육미혼모·부 가정이 약 500가정이 넘습니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미혼임신부의 출산을 지원하며, 전국의 재가 양육미혼모·부 가정에 양육물품지원, 식료품 및 생필품지원, 명절 및 성탄절 선물 지원, 가정방문서비스, 지속적인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 정부복지서비스 정보안내, 타 기관 연계를 통해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혼모·부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가미혼모·부 가정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거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아를 양육중인 미혼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초수급권 탈락 우려, 어린이집 보내는 데 아빠의 부재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감, 긴급상황에 아이돌봄이 안되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몇 번 있다 보니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직접 아이를 돌보게 되는 등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재가 양육미혼모·부들의 경우 육아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는 높지만 혼자서 육아를 담당하고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때로는 미혼모나 미혼부도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간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동안 재가 양육미혼모들을 만나고 상담하다보니 원가족과 단절되어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결국 사회적 안전망도 없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

니다. 특히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와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간의 지지체계도 편차가 있었고 시설 퇴소 후에 사례관리가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삶의 모습도 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하면 양육미혼모·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복지서비스는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복지서비스가 재가 양육미혼모·부에게까지 전달되어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기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정부의 정책을 잘 알지 못하여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미혼모·부 거점기관을 통해 여러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신청하는 절차상의 어려움 및 거점기관의 경우 경기도는 단1개(안산)로 미혼모·부가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으로 복지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미혼모·부 가정과 아이의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미혼부 가정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가 양육미혼모·부 가정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례1: 20대 후반, 3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미혼부

서울 친구 집에서 살고 있었으나 친구가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 되어 갈 곳이 없어짐. 주소지 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아이는 36개월이 넘도록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었음. 법원에서 2번이나 출생신고 부결판결만 받음. 아이 출생신고가 안 되어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고, 병원진료 및 한부모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며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었음. 원가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2018년 2월 러브더월드로 지원을 요청함.

--> 러브더월드 지원: 주거지원(월세, 보증금), 주민등록 재등록, 주택청약지원, 식료품, 양육 물품, 생활비지원. 8월에 출생신고 완료. 어린이집 입소 대기 중, 한부모 및 주거급여 지원 확정됨.

- <미혼부 의견> - 주소지가 없이 주민등록 말소되어 어려움이 많았음.
 - 미혼부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쉼터, 자조모임이 있었으면 함.
 - 혼자 아이를 돌보는데 양육스트레스가 심했음.

사례2: 30대, 100일된 아기를 키우고 있던 미혼모.

2015년 1월에 네이버 쪽지로 도움 요청함. 월세가 3개월 밀리고 공과금까지 밀려있는 상황.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겨울인데 난방 안 되고, 식료품이 전혀 없었음. 몇 군데 미혼모쉼터를 문의했으나 아기를 낳았다고 받아주지 않았고, 공동생활가정은 입소대기자로 계속 기다리는 중. 정부지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음. 아이는 모유를 먹이고 엄마는 거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건강이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었음.

--> **러브더월드 지원:** 정부복지서비스 및 보건소 영양플러스 연계, 월세지원, 공과금지원, 식료품 및 양육물품지원. 아이 돌잔치지원. 쉼터숙식지원(5개월). 주거지원 받아서 수원에 서 지냄.

<미혼모의 의견> - 같은 상황의 미혼모들과의 만남이 정서적으로도 지지가 되어서 좋았음.
 - 식료품과 밑반찬, 과일 등을 들고 가정방문 해준 것이 가장 좋았음.
 - 기초수급권 탈락할까봐 4세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음.

사례3: 40대 중반,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8년을 살아온 미혼모.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왔고, 8년 전 금융문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취업을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하면서 지냄. 고시원에서 살며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임신인 줄 모르고 살다가 거의 막달이 되어서 스스로 확신하였음. 나이가 많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미혼모시설에 전화를 해도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고 함. 2018년 3월에 러브더월드에서 상담요청을 함.

--> **러브더월드 지원:** 쉼터숙식지원(2개월), 출산의료비지원, 주거지원 및 주민등록재등록, 양육물품지원 등. 트라이앵글사업 연계 보증금지원.

<미혼모 의견> - 정부의 복지서비스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음.
 - 주민등록이 말소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긴급지원해주면 좋겠음.

사례4: 20대 후반의 미혼임신부

출산직전까지 카페,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 및 생계유지 압박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음. 성남지역 반지하방에서 살면서 자취방을 혼자서 정리하기도 어려웠고, 시설에 입소하면 일을 하러 다닐 수 없다는 말에 입소를 못하고 있었음. 2015년 7월, 지원요청.

--> **러브더월드 지원:** 출산비용지원, 쉼터숙식지원(1년), 산후조리지원, 양육물품지원, 정서지원, 자립준비교육, 아이돌잔치 지원, 아이아빠로부터 양육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민간단체로부터 2년간 생활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 교회연계 등. LH임대아파트 지원 받음.

<미혼모 의견> - 시설에 입소 안 해도 출산지원, 아르바이트, 자조모임 등을 지원받기 원함.
 -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아기를 낳아도 축하받지 못할 때 너무 힘들었음.
 - 쉼터에 같이 있던 미혼모 언니 동생들이 지금은 큰 지지그룹이 되어있음.

사례5: 20대 초반의 재가 양육미혼모

임신한줄 모른 채 직장 다니며 살고 있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며칠 쉬던 중 택시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출산을 하게 됨. 출산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됨.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미혼모로 장애아동을 키우는 것을 친정어머니는 전혀 도와주지 않음. 아

이의 장애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생겼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복지서비스도 전혀 모르고, 양육물품을 지원받기 위해 2017년 4월 러브더월드에 연락함.

--> 러브더월드 지원: 가정방문, 양육물품지원, 복지정보안내, 취미여가활용교육제공(꽃꽂이 등)

- <미혼모 의견> -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서 다른 미혼모들 만날 기회가 전혀 없음.
 - 미혼모 멘토링, 육아방법이나 스트레스관리, 정서적지원 등 필요함.
 - 시설입소 않더라도 재가 미혼모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음.
 - 외부 출입이 쉽지 않음. 가정방문, 전화, 카카오톡 상담 등 해주면 좋겠음.

사례6: 30대 초반의 재가 미혼모

어머니가 암환자로 병원입원중이고 월세 및 생활비를 본인이 감당해야하는 이유로 시설 입소를 못하고 있었음. 시설 입소를 안 하면 출산지원을 못해준다는 말을 듣고 일해서 병원비를 마련하는 중이었으나 몸이 안 좋아져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2018년 9월 러브더월드로 연락을 해옴.

--> 러브더월드 지원: 긴급제왕절개수술지원, 아기의료비지원, 입양연계

<미혼모 의견> - 미혼모시설 입소하지 않아도 지원 받는 것, 입양 후 심리 정서적 지원필요.

사례7: 30대 초반의 재가 양육미혼모

용인에서 3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재가미혼모로 혼자 육아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함.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함.

--> 러브더월드 지원: 아이와 엄마를 약2주간 분리시킴. 미혼모상담 및 정신과치료연계. 양육물품지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학대 없어짐. 정서적 지원 진행 중.

<미혼모 의견> - 어린이집 보내면 국가지원 못 받을까봐 걱정되었고, 아이 키우면서 외로움.
 - 주거지원 받아서 살고 있으나 안산에서 하는 모임에는 멀어서 못가고 있음.

<재가 양육미혼모·부 가정 지원을 위한 제안>

1. 긴급 상황에 미혼모·부가정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2.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지원서비스 필요
3.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임신부도 출산지원 받도록 하거나 국민행복카드 한도액 증액
4. 경기도권 미혼모·부 거점기관을 늘려주거나 민간단체를 활용한 재가미혼모·부 지원
5.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완화 및 미혼부들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6. 정부의 복지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필요
7.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어도 민간단체 추천 또는 개인 소명서를 통해 긴급지원을 받도록 제

도 마련

8. 지역사회에서 양육미혼모·부 가정이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복지서비스 이외에 미혼모자조단체와 지역사회 민간단체들, 사회적 관계 및 지지, 교육, 상담, 원가정에 대한 개입 등 자조단체 및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



토론 03

토론문

변규란 에벤에셀모자원 원장

재가 미혼양육모의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방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연계활용을 중심으로)

에벤에셀모자원장 변규란

1. 서비스지원

- 1) 미혼모 임신기 및 출산기 긴급주거시설 제공에 대한 폭넓은 지지망 개선이 필요함. 기존의 미혼의 임산부가 입소가 가능한 기본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20여개소이고 주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음. 미혼모부자 거점기관도 현재 17개소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미혼모부자 가족의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2) 서비스 접근성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전국 4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긴급주거시설 및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주거서비스와 전문적인 정보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고, 시설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이러한 시도들은 재가 미혼모자가족이 겪는 고립감이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다소 완화할 수 있고, 출산 및 자녀양육 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유의한 통로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미혼모부자가족을 포괄하는 다수의 정보와 전문적 실천방안들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시설과 재가를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시설에서 재가 미혼양육모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것도 지역서비스를 통합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안하고자 함.

2. 인식개선

- 1)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지 않더라도 어느 시대나 미혼모부와 자녀는 삶의 한 과정으로 존재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편견도 사회구조적 부산물로 생성되어 왔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준점과 수위가 모호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인식개선'이라는 화두는 어쩌면 같은 방향의 사고를 권유하는 타율적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인식개선'은 자율보다는 타율에

의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보여 짐.

2) 인간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선이지만, 한편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 중에 사회구성원을 계층화 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봄. 한부모·미혼모·장애인·노인·동성애자 등등 행정편의적 카테고리 용어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용어는 구조화되어 개인의 편견을 만들고 집단을 낙인화하는 편견으로 인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행정편의적 용어 사용의 깊은 성찰이 필요함.

3) 외부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당사자의 인식전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함. 자신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나 자기위안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고, 자신과 자녀에 대한 낙인감과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오늘날 한국사회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말이 낫설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지향하는 정책이 국가정책의 최우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에 출산을 했다는 것은 대접 받아야 할 일인 것으로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또한 당당하게 요청해야 할 것임.

3. 제도개선

1) 한 방향의 정책에 기존의 인프라를 통합하는 서비스 방안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함. 한부모가족복지정책에 해당하는 주거, 생계, 교육, 정서, 문화 등 정책들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부처의 통합적 공조가 필요함. 이로써 단편화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가 배제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지기를 촉구함.

2) 기존시설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다기능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함. 지침과 규칙의 유연성을 통하여 시설 간, 기관 간 역할에 대한 폭을 넓히고 다양하고 다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사자들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이혼소송 중에 있거나 가정폭력 피해자로 안전한 거처가 필요한 당사자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이용의 폭을 확대하여야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이혼경험이 있는 임신부의 출산서비스 제한이나, 순수 미혼모임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출산시설 입소거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토론 04

토론문

재가양육미혼모 당사자 사례발표

사례를 통해 본 재가양육미혼모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과 개선점

사례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3개월 차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가 6개월 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2년의 입소기간을 채우면 퇴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입소함과 동시에 퇴소준비를 하며 자립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립을 준비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제과제빵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여 배웠는데 국비지원교육은 시간을 제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고 결석일수도 정해져있고 지각 조퇴 등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였습니다.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았지만 오전반은 9시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도 8시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7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데려다줘야 하는데 아이가 떨어지려하지 않고 아침컨디션이 하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오전반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오후반은 1시30분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4시간을 무조건 채우고 출퇴근 관리하는 것처럼 수업이 끝나는 시간도 꼭 지켜서 퇴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5시30분에 끝나면 퇴근시간과 맞물려서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7시가 다 되어서 다른 아이들은 가고 없고 선생님과 혼자 남아있는 우리 아이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면 8시가 넘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여 오전이나 오후에 2시간 정도 아이를 맡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아이돌보미 신청이 다른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이돌보미 신청율이 가장 높아서 대기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대기순서가 되면 바로 매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돌보미 선생님들도 스케줄을 잡으실 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가정과 많은 시간을 하는 가정 그리고 제가 원하는 5시부터 7시 타임은 피크타임이라서 2시간만을 가지고 이동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이집과 입소시설선생님과 옆방에 거주하는 시설자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부탁하며 국비지원프로그램을 수료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는 것도 지원받는 것도 많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힘든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돈을 벌어야하는데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제과제빵자격증을 모두 취득했지만 커피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학원을 다니

면서 커피학원원장님이 제 사정을 아시고 제가 열심히 교육받는 모습을 보시고 국비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로 추천해주셨고 저는 심사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고 NCS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만 교육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경력을 쌓기 위해 놓치고 싶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고 구해지는 동안만 부모님께 아이를 부탁드렸습니다. 바리스타2급자격증과정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교육기간이 28일로 30일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생도 강사도 결석을 하면 안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중에 아이가 아파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아이돌보미도 병원돌보미도 구하지 못해서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아이가 저를 많이 찾아서 친정이 있는 목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광주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고 일도 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아이돌보미 금액을 지원해 줄 테니 신청하라고 하지만 저는 신청해도 대기자에서 매번 밀렸으며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하겠다는 게 죄인 것처럼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키우겠다는 게 무책임한건 아닌지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청년들 취업률도 낮은데 경력단절이면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는 회사에서도 아이 때문에 회사에 지장을 줄까봐 경력이 있어도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일을 시작하면 부모님의 생활비까지도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가 나가서 벌 수 있는 월급으로 부모님과 아이와 제가 잘 살아 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아이돌보미지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필요하고 지금도 아이돌보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아이돌보미 덕분에 아이양육에 큰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대기에서 밀리고 시간에서 밀리고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내가 아니 누군가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부모님과 한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게 등본상에도 확인이 되고 등본상 소득활동하는 사람이 저뿐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저와 같은 가정에도 지원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사회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을 아이돌보미만 지원해주지마시고 아이의 할머니할아버지도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많이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2.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재가 양육 미혼모입니다. 먼저 재가 양육 미혼모들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업과 약육을 병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업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수업 이외의 조별과제, 학교행사, 자원봉사, 주말시험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나 교육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친인척과 직계가족이 없는 저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자녀 가족을 우대해 주는 정책으로 인해 한부모들의 어린이집 대기 번호가 점차 뒤로 밀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입소 점수가 높아져 법정 한부모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데 대략 1년~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만 양육하게 된다면 경력단절, 학업중단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보다 한부모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양육부담이 훨씬 더 큼니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잠깐씩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가 양육 미혼모들의 아이돌봄서비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미혼모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입니다. 그들의 급여는 각각 최대 854,129원, 1,450,000원입니다. 8시간씩 5일을 일하는 것으로 아이돌봄 비용을 계산하면 매월 249,6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소득대비 부담률이 기초생활수급자가 29.2%로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이돌봄은 소득이 가장 낮은 가형, 그 다음 나형, 다형, 가장 높은 라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소득이 가장 낮은 가형의 돌봄비용 인상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2017년 1월 경 여성가족부 신문고에 이런 인상률을 토대로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 2018년은 다행히도 4%가 인하 되었지만 그래도 최근 5년 동안 소득이 제일 낮은 가형의 돌봄비용 인상률이 가장 큼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양육 미혼모들은 100% 시설에서 지원해 주는 반면 재가 양육모들은 자부담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면 월세, 공과금은 물론이고 각종 지원품, 후원품들을 받고 또한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월세, 공과금, 식비, 양육물품비 등 많은 생활비가 들어가는 재가 양육모들은 자부담비용을 내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더 아이돌봄비용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였을 때 재가 양육모들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해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형을 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 일반가정 가형으로 세분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와 법정한부모의 지원금을 늘려주시시오. 시설에 있지 않고 재가하였을 때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나라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을 점차 늘린다는 정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지원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부담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중 누구보다 절신한 사람이 '재가 양육미혼모'입니다.

표 1.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급여 기준과 소득대비 부담율

가형	급여	일시간*돌봄시급=돌봄비용	소득대비 부담율(%)
2인수급자	854,129원	일 8시간*1560원 = 249,600원	29.2%
2인법정한부모	1,450,000원		17.2%
2인중위60%가족	1,708,258원		14.6%

표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인상을 추이

	2013년	→	2015년	→	2017년	→	2018년	최근5년 인상률
가형	1,000원	50%인상	1,500원	8.3%인상	1,625원	4%인하 2017.1 건의	1,560원	56% 인상
나형	3,000원	10%인상	3,300원	8.3%인상	3,575원	9%인상	3,900원	30% 인상
다형	4,000원	12.5%인상	4,500원	8.3%인상	4,875원	12%인상	5,460원	36.5% 인상
라형	5,000원	20%인상	6,000원	8.3%인상	6,500원	20%인상	7,800원	56% 인상

사례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미혼모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인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하는 것 못지않게 참 힘들고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겁 없이 달려든 학업이 너무 벅차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혼모네트워크 선생님들의 도움과 충고로 인해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이 당연히 육아를 대신 해주셨던 것입니다.

당장 학교에 가야하지만 어린이집에 가야할 순번은 되지 않고 아이들을 맡길 만한 곳조차 없어 너무 속상하고 앞이 막막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고 부모형제도 없기 때문 일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막막하여 눈물만 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돌보미 서비스가 잘 연결되어 큰 어려움을 덜고 학교에 다시 복학 할 수 있었습니다. 돌보미를 신청하여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사람이나 와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지내다보니 아이의 컨디션이 선생님마다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하게 신청했던 터라 여러 선생님들이 오셨었는데 교육을 잘 받으신 좋은 선생님들은 일단 엄마와 헤어질 때 아이를 컨트롤 할 줄 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은 오히려 부모에게 잔소리를 하려하고 아이의 컨디션이 엉망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선생님들은 종일 돌보미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지만 막상 돌보미 이용하는 저는 종일반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좋은 것은 그래도 시간제라도 선

생님들이 아이를 잘 컨트롤 해주시고 잘 배정되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일처럼 신경 쓰시는 듯 하고 함께 안타까워해주시고 알아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을 해결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잘 와 닿아 감사했습니다.

좋은점= 첫째로 상담사 선생님들의 친절함. 일을 함께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

둘째로 여러 선생님들의 능숙한 아이 컨트롤, 부모를 배려한 행동들...

단 점= 첫째로 선생님들의 교육수준(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돌보미 사전 교육),

둘째로 종일제 선생님들을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아쉬운 점 등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돌보미서비스를 받아보신 모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지만 저 역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토론 05

토론문

남소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서기관



재가(在家) 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 방안

토론회